

東大寺圖書館 소장 『大方廣佛花嚴經』 卷第12~20에 角筆로 기입된 諸符號*

Marks Written in Gakpil in the Volume Twelve to Twenty of
the *AvatamsakaSutra* Owned by Todaiji Library

박 부 자 (Pakh, bu-ja)**

◁ 목 차 ▷

- | | |
|----------------|---------------|
| 1. 서론 | 3. 讀誦과 관련된 부호 |
| 2. 텍스트와 관련된 부호 | 3.1 聲點 |
| 2.1 合符 | 3.2 梵唄符 |
| 2.2 訓讀符 | 4. 이해독의 부호 |
| 2.3 省略符 | 5. 결론 |
| 2.4 削除符 | <참고문헌> |

< 초 목 >

본고는 8세기 중반에 書寫된 東大寺圖書館 소장 『大方廣佛花嚴經』 卷第12~20에 角筆로 기입된 符號를 정리하여 그 전체 모습을 학계에 보고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8세기 중반에는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讀誦하는 데에 어떤 부호가 사용되었는지, 그 부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 단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동대사 화엄경에 각필로 기입된 부호는 텍스트와 관련된 부호와 讀誦과 관련된 부호로 나눌 수 있었다. 텍스트와 관련된 부호로는 合符, 訓讀符, 省略符, 削除符 등이 있으며, 讀誦과 관련된 부호로는 聲點과 梵唄符가 기입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존의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梵唄符의

* 이 논문은 2014년 4월 26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목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글은 동대사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료조사에 대한 동대사도서관 측의 승인과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사서인 坂東俊彦 선생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 본고에서 각필 부호를 정리하는 데에는 신라사경 프로젝트 팀(2014)의 『결과물(1) 東大寺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권제12~20 교감 연구』가 근간이 되었다. 이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연구교수(rich8951@naver.com)

접수일: 2014년 9월 13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6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시작점과 聲點의 관계를 점검해 본 결과 평성자의 경우는 그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각 부호를 살펴본 결과 동대사 화엄경에 기입된 부호는 기입 위치 및 부호의 모양과 그 부호가 표시하는 기능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았다. 이외에 미해독의 부호도 적지 않은데 그 가운데 몇몇은 逆讀線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要語: 東大寺, 新羅寫經, 『大方廣佛花嚴經』卷第12~20, 각필부호, 合符, 訓讀符, 省略符, 削除符, 聲點, 梵唄符

<ABSTRACT>

This paper aims to organize the marks written in *gakpil* in the Volume twelve to twenty of *the AvatamsakaSutra* owned by Todaiji Library, which was transcribed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and to report the over all features of the marks to the academic community. It shall directly prove the marks used in understanding or reciting the texts in the middle of the 8th century and their specific roles respectively. To begin with, the marks written in *gakpil* in *the AvatamsakaSutra*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he marks related to the texts, which includes *Hap-bu* (合符, marks for the aggregation), *Hundok-bu* (訓讀符, marks for rendering Chinese writing into Korea), *Sangryak-bu* (省略符, apostrophe), *Sakje-bu* (削除符, marks for elimination), and the ones to the recitation, comprised of *Seongjeom* (聲點, marks for the “Four Tones” of classical Chinese) and *Beompae-bu* (梵唄符, marks for the Buddhist chants). Amongst the marks, it i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 of the starting point of *Beompae-bu* to *Seongjeom* cannot be contradicted in case of *Pyeongseongja* (平聲字),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possible relations suggested in the existing discussion. There also exist the undeciphered mark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few of them could be the ones for the translation and reading. Based on the examination on each mark, it is ascertained that the location and the form of the marks do not show the pattern of one-to-one correspondence to the indicating function of the marks in *the AvatamsakaSutra* owned by Todaiji Library.

Key words: Todaiji, *gakpil*, *the AvatamsakaSutra*, the marks, *Hap-bu*(合符), *Hundok-bu*(訓讀符), *Sangryak-bu*(省略符), *Sakje-bu*(削除符), *Seongjeom*(聲點), *Beompae-bu*(梵唄符)

1. 서론

東大寺圖書館 소장 『大方廣佛花嚴經』 권제12~20(이하 ‘이 자료’라 칭함)은 740년 경에 書寫된 新羅 寫經으로, 이 자료에서 新羅 角筆 口訣이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각필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新羅 寫經에 대한 學際的 研究” 프로젝트(연구책임자 정재영)가 진행된 지난 3년 동안(2010. 9 ~ 2013. 8) 이 자료의 角筆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온 결과, 新羅 口訣 약 300여자와 漢文解釋符號 50여 개가 각필로 기입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에 기입된 符號가 학계에 보고된 것은 小林芳規(2008, 2012)에서 다룬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8세기 중반에 書寫된 東大寺圖書館 所藏 『大方廣佛花嚴經』 卷第12~20에 角筆로 기입된 符號를 정리하여 그 전체 모습을 학계에 보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8세기 중반에는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讀誦하는 데에 어떤 부호가 사용되었는지, 그 부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 단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된다.

東大寺圖書館 所藏 『大方廣佛花嚴經』 卷第12~20(이하 ‘이 자료’라 지칭함)에 기입된 角筆 조사가 2009년 8월부터 시작된 이래 지난 2014년 7월 조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필자는 2012년 1월, 2013년 1월, 2013년 8월, 2014년 7월 4차례에 걸쳐 角筆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과정에서 [白], [借], [乃], [沙] 등의 각필자와 ‘說’에 기입된 각필부호 梵唄符를 實見한 바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자료에 기입된 角筆의 존재에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2014년 7월 조사 결과까지 반영된 小林芳規 선생의 조사본에 의거하여 각필자 중 문법형태소를 중심으로 이 글을 구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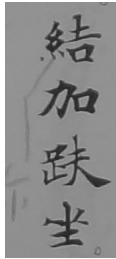
2. 텍스트와 관련된 부호

2.1 合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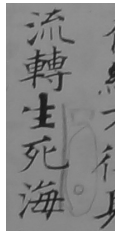
合符는 漢字 2자 또는 그 이상이 하나의 단어라는 것을 나타내거나 또는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시한 부호이다. 동대사 소장 화엄경에는 角筆로 기입한 合符가 여럿 확인되었다. 주로 해당 글자에 수직선으로 기입되었으나 그 모양이나 위치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小林芳規(2003)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에서 확인되는 合符는 墨書 혹은 朱書로 한자와 한자 사이에 짧은 縱線을 기입하는 것이어서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과 형태상의 차이를 보인다.¹⁾ 合符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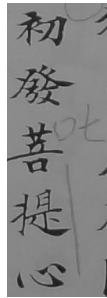
<사진 1>
21행



<사진 2>
639행



<사진 3>
675행



<사진 4>
705행



<사진 5>
945행

(1) 가. 卽於南方化作蓮華藏師子之座 結加趺[3자수직선]坐 (즉시 남쪽에서 연화 장 사자좌를 변화하여 만들고 걸가부좌하였다.) <21행>

나. 於其座上 結加趺[3자꺾은수직선]坐 (그 사자좌 위에서 걸가부좌하고 앉았다.) <639행>

1) 小林芳規, “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 京都·大谷大學藏『判比量論』에서의 發見,” 『口訣研究』 제10집(2003). 5-30.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필기구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다. 於无量劫中 流轉生死海[3자곡선] (한량없는 긴 세월에 나고 죽는 바다에 헤매게 되리) <675행>
라. 悉以種種妙辯才 開示[旃]初發[叱]菩提心[3자역사선] (가지가지 미묘한 변재를 다해 처음 낸 보리심을 열어 보여도) <705행>
마. 守護[범패부]受[**]持[2자수직선]廣大法藏 (넓고 큰 법장을 수호하여 가지고) <945행>
cf. 고려시대 점토 석독구결의 합부(장경준 2008)



<사진 6> 관통-수직선[내부형] 바깥-곡선[외부형]

(1가)는 ‘結跏趺’ 3자의 중앙을 관통하는 수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2나)는 (1가)와 같은 ‘結加趺’에 합부가 표시된 것인데 형태와 위치는 (1가)와 달리 글자의 왼쪽 바깥으로 꺾은수직선으로 그어졌다. (1다)에서는 ‘生死海’ 3자의 오른쪽 바깥으로 그어진 곡선 형태의 습符를 확인할 수 있다. (1라)의 ‘菩提心’에는 글자의 오른쪽 바깥으로 역사선이, (1마)의 ‘受持’에는 글자의 왼쪽을 관통하는 수직선이 그어져 있다. 모두 습符를 표시한 것이다. 고려시대 점토구결에서도 이와 같은 습符가 확인된 바 있는데, 장경준(2008)에 의하면 글자의 중앙을 관통하는 수직선의 모양을 띠는 ‘내부형’과 글자의 바깥쪽에 그어진 곡선의 모양을 띠는 ‘외부형’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8세기 중반에 사용되었던 습符보다 형태와 위치면에서 일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자료에서 습符는 약 20개 정도가 확인되는데 주로 명사 혹은 명사구에 기입되어 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습符의 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동대사 화엄경에 기입된 습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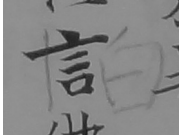
행수	한자	위치	모양	비고
21	結加趺	중앙관통	수직선	
30	一切	중앙관통	수직선	
57	諸佛子	오른쪽 관통	수직선	
167	无量刹	오른쪽 관통	수직선	
192	佛子	왼쪽	긴 수직선	
248	上昇	오른쪽 관통	곡선	
363	婆羅門	왼쪽	수직선	
528	忉利天	중앙관통	수직선	
587	他化自在	중앙관통	수직선	선은 化自在에만 그어져 있음.
587	妙香	왼쪽 관통	수직선	
639	結加趺	왼쪽	역사선+수직선	
675	生死海	오른쪽 바깥	곡선	
705	菩提心	오른쪽 바깥	역사선	
728	神通	중앙관통	수직선	
767	功德	중앙관통	수직선	
824	龍王	오른쪽	수직선	'龍王' 위아래로 더 길게 그어져 있음.
827	佛力	오른쪽	수직선	
945	受持	왼쪽 관통	수직선	
1059	退轉	오른쪽 관통	수직선	선은 '無退轉' 3자에 그어져 있음.

587행 '他化自在'에는 중앙을 관통하는 수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실제 각필선은 '化自在'에만 그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化自在'가 하나의 단어 혹은 하나의 개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他化自在'에 습符가 표시된 것으로 보았다. 또 1059행에서는 '無退轉'의 오른쪽을 관통하는 수직선이 그어져 있으나 이 또한 '無退轉'을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退轉'에 습符가 표시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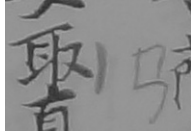
2.2 訓讀符

訓讀符는 현재까지 총 6개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해당 한자의 오른쪽에 수직선으로 기입되었다. '言'에 기입된 訓讀符 2회 중 207행의 예는 다른 訓讀符의 예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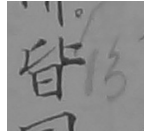
럼 오른쪽 수직선의 형태이지만 아래에 제시한 178행의 경우 왼쪽에 수직선이 기입되어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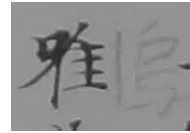
<사진 7>
178행 '습-'



<사진 8>
661행 '알-'



<사진 9>
691행 '다'



<사진 10>
761행 '오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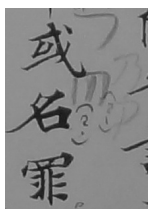
- (2) 가. 尗時[良] 文殊師利菩薩問目首菩薩言[白][수직선]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目首보살에게 물었다.) <178행>
- 나. 諸法無眞實 妄取[取][수직선]眞實相 是故諸凡夫 輪迴生死獄 (모두 진실하지 않은데 허망하게 진실하다 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범부들 나고 죽는 獄에서 헤매고 있네.) <661행>
- 다. 以三昧力 十方各千佛刹微塵數世界之外 有千佛刹微塵數諸佛 皆[皆][수직선]同一名 名曰法慧 (시방으로 각각 일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세계 밖에, 일천 부처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이 계시니 다 같이 명호를 法慧라 하는데...) <691행>
- 라. 唯[鳥][수직선]佛[分]能知 (오직 부처님만이 아실 것이옵고) <761행>
cf. 唯只 <우적가>

(2가)는 ‘言’을 訓讀하여 각필자 [白]을 기입하고 동시에 짧게 수직선을 그었다. (2나)는 ‘取’에 각필자 ‘良’의 초서체인 ‘取’과 수직선이 함께 기입되었는데, ‘取’는 동사 어간 ‘알-’을 기입한 것으로 ‘取’를 혼독한 것이며 혼독한 글자 옆에 수직선이 기입된 것이다. (2다)는 ‘皆’에 각필자 ‘多’의 초서체 ‘皆’과 수직선이 함께 기입된 것으로 ‘皆’의 혼 부사 “다”이며, 수직선은 혼독과 관련된 부호임을 짐작할 수 있다. (2라)의 ‘唯’에는 각필자 ‘鳥’와 역시 수직선이 기입되었는데 ‘鳥’는 ‘唯’를 訓讀한 ‘오덕’의 첫 음절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향가에서 ‘唯只’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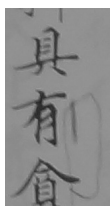
2) 기존의 논의에서는 내용상 주목할 부분임을 표시하는 注視符로 언급되었던 것이다. 박부자, “동대사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2~20에 기입된 각필자 [白]에 대한 연구,” 『口訣研究』 30(2013), 81-106에서 ‘言’에 [白]과 함께 [수직선]으로 기입된 ‘注視符’를 정재영 선생님과 김영옥 선생님 등의 말씀을 듣고 ‘혼독부’로 지칭한 바 있다.

났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때 기입된 수직선 역시 혼독과 관련된 부호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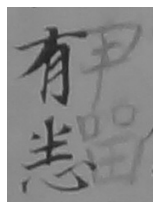
(2나) 외에 訓讀符로 추정되는 다음의 예도 있다.



<사진 11> 49행



<사진 12> 550행



<사진 13> 77행

(3) 가. 或[刀?][수직선?]名罪 (혹은 죄라 하고) <49행>

나. 帝釋具有[*][수직선]貪患癡 能令眷屬悉歡喜 (제석은 貪·患·癡를 갖추고 있어도 권속들을 모두 다 환희케 하니) <550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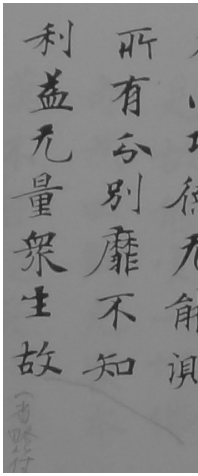
cf. 其[*]中[*]所[*]有[伊留]悉皆[*]明[*]現[良](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77행>

‘或’ 아래 기입된 [수직선]과 각필자 [刀]에 대해 小林芳規 선생의 2014년 이집본에서는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3가) 이외에도 ‘或[刀]名緊縛(또는 속박이라 하고) <50행>’에서처럼 ‘或’에 [刀]가 기입된 예가 3회 더 존재하므로 ‘或’의 訓 ‘또’ 정도를 기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 (3가)와 같이 수직선이 기입되어 있다면 이 또한 (2)의 예에서처럼 訓讀符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그 존재 여부가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나)의 [수직선]은 ‘有’에 기입된 것으로 함께 기입된 각필자가 어떤 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각필 흔적은 있는 듯하지만 그 자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의 77행에 ‘有’를 [伊留]³⁾로 訓讀한 예가 있으므로 (3나)에 각필자가 기입되어 있다면 ‘有’를 혼독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角筆로 기입한 수직선 또한 訓讀符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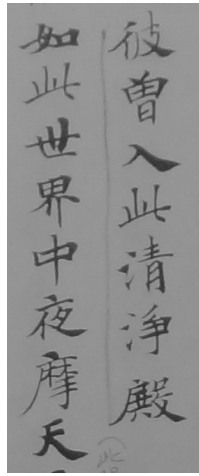
3) 권인한, “東大寺圖書館藏 華嚴經의 角筆로 본 新羅漢字音,” 『口訣研究』 33집(2014)에서는 ‘*이룣/룣->?*읻->>읻-~이시-~시-[有]’로 재구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2.3 省略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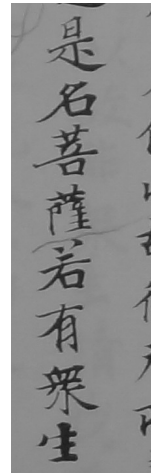
그간의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자료는 경 본문의 중간 중간을 생략한 ‘節略本’이다. 생략된 부분에 긴 수직선 혹은 역사선, 수평선 등이 角筆로 그어져 있는데 생략되었음을 표시한 省略符로 추정된다.



<사진 14> 842행



<사진 15> 973~4행



<사진 16> 1108행

- (4) 가. 一念三世悉明達 利益无量眾生故[역사선]
 一切眾生諸惑業 三有相續無暫斷 <842~843행>
 나. 一念三世悉明達 利益無量眾生故。
 十方世界諸眾生 欲解方便意所行
 ……(중략)……
 於一念中悉了知 一切智智心同等
 一切眾生諸惑業 三有相續無暫斷 <신수대장경>
- (5) 가. 彼曾入此清淨殿 是故此處最吉祥[占]
 如此世界中夜摩[7자수직선] 天王承佛神力憶念往昔諸 <973-974행>
 나. 彼曾入此清淨殿 是故此處最吉祥
 喜目如來見無礙 諸吉祥中最無上
 彼曾入此莊嚴殿 是故此處最吉祥
 ……(중략)……

彼曾入此普嚴殿 是故此處最吉祥

如此世界中夜摩天王 承佛神力 憶念往昔諸佛功德 稱揚讚歎 <신수대장경>

(6) 가. 是名菩薩[수평선]若有衆生承事供養 <1108행>

나. 是名菩薩摩訶薩第七無著行 佛子!何等爲菩薩摩訶薩難得行 … (중략) …
於念念中 能轉阿僧祇劫生死 而不捨菩薩大願 若有衆生 承事供養 <신수대장경>

(4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대사 화엄경에서는 842행에 계송 ‘一念三世悉明達 利益无量衆生故’ 다음에 843행에 계송 ‘一切衆生諸惑業 三有相續无暫斷’이 바로 이어져 나온다. 그러나 (4나)의 신수대장경과 비교해 보면 이 842행과 843행 사이에는 계송 일부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842행의 마지막 글자인 ‘故’ 아래 바로 역사선이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842행 ‘故’ 다음에 생략된 부분이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5가)는 이 자료의 973~974행을 보인 것이다. 973행의 계송 ‘彼曾入此清淨殿 是故此處最吉祥[占]’ 다음에 974행에는 ‘如此世界中夜摩天王承佛神力憶念往昔諸’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 또한 (5나)의 신수대장경과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역시 계송 일부가 생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974행 오른쪽에 긴 수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생략된 부분이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과 행 사이가 생략된 것이라면 수직선을 기입하겠지만 한 행 안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직선으로 표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6가)는 1108행의 경우를 보인 것인데 이 자료에서는 ‘是名菩薩’ 다음에 ‘若有衆生承事供養’이 바로 이어지지만 이 또한 (6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薩’과 ‘若’ 사이 상당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생략된 부분에 수평선이 기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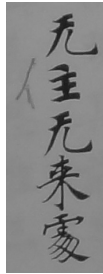
2.4 削除符

동일한 부분을 한번 더書寫하여 경문을 수정할 경우 삭제해야 할 해당 글자의 왼쪽에 짧은 역사선이 그어져 있다. 이 削除符는 小林芳規(2008)에서 소개된 바 있다.

- (7) 佛[、]子[、]菩[、]薩[、]摩[、]訶[、]薩[、]佛子菩薩摩訶薩勤修此法次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법을 부지런히 닦으면) <942행>

‘佛子菩薩摩訶薩’이 한 번 더 들어가 있고 각필로 삭제해야 할 부분을 표시를 한 것이다.

동대사 화엄경에는 이와 같이 잘못 書寫한 것이 몇 군데 더 있다.⁴⁾ 그 가운데 해당 한자를 교정한 각필자도 보인다.



<사진 17> 1027행

- (8) 가. 種種諸色相 无主[亻]无來處 (가지가지 빛과 모양 머문 곳도 온 곳도 없네.) <1027행>
 나. 『主』, <南><徑><淸>作 『住』 <中華藏 교감기>
 다. 主=住 【明】 <신수대장경>

[亻]은 ‘主’의 오른쪽에 기입되어 있다. [亻]은 ‘主’를 ‘住’로 교정하기 위해 기입한 각필자이다. ‘主’에 기입된 각필자를 특정 기능을 하는 부호로 보기는 어렵지만 문법형태소나 어휘형태소를 기입하는 일반적인 각필자와도 차이가 있다. 텍스트를 교정하면서 기입된 것이어서 본고에서 우선 소개해 두기로 한다.

4) 그러나 삭제부호가 기입된 부분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5)가 전부이다.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더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3. 讀誦과 관련된 부호

3.1 聲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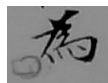
小林芳規(2008)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자료에는 한자의 네 모서리에 聲點이 표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 기입된 聲點에 대해서는 최근 권인한(2014)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어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권인한(2014)에 따르면 이 자료에 기입된 聲點은 총 총 22항목인데, 聲調별로는 平聲 8자, 上聲 3자, 去聲 7자, 入聲 5자가 나타나며 이를 토대로 추정해 보건대 당시의 聲點 加點法이 중층적이었으며 破音點에서 聲點으로 이행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聲點이 표시된 실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18> 1047행
평성



<사진 19> 604행
상성



<사진 20> 1071행
거성



<사진 21> 600행
입성

3.2 梵唄符⁵⁾

梵唄⁶⁾에 관한 기록은 신라백지묵서 화엄경 권제10과 권제50 말미의 造成記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 이 造成記에 기록된 寫經의 절차 및 그와 관련된 불교 의식

5) 일본 학계에서는 ‘節博士’라는 용어를 쓴다. ‘節博士’는 불교의 의식이나 法要에서 승려가 讀誦하는 聲樂의 聲明歌詞의 옆에 그 高低나 長短의 旋律을 나타낸 譜이다(小林芳規(2003)). 장경준, “釋讀口訣과 訓點 資料에 使用된 符號의 比較研究 試論,” 『구결학회 발표 논문집』 (2012), 121-143에서는 이를 “낭송하는 한자의 높낮이나 길이 등을 표시한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梵唄符’는 신라사경팀 강독회에서 남풍현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필자도 이에 따른 것이다.

6) 梵唄란 경문에 곡조를 붙여 讀經讚永하여 佛德을 찬양한다는 뜻으로(<불교대사전>) 사찰에서 齊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이다(車炯錫, “角筆樂譜 研究: 誠庵古書博物館所藏 『妙法蓮華經』 卷 8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한국음악과, 2005』, 4).

에 관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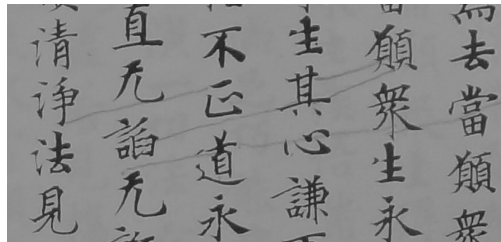
又 一 法師 香爐 捧引弥 又 一 法師 梵唄 唱 引弥 諸筆師等 各 香花捧亦
右念行道 爲作處中至者 (또 한 법사가 향로를 받들어 이끌며, 또 한 법사가
범패를 부르면서 이끌고, 여러 필사들이 각기 향화를 받들어서 右念行道하여
(사경을) 만드는 곳에 이르면) <신라백지목서 화엄경 10권 조성기 12행>

* 이두문 번역은 정재영(2000:204)에 의함

造成記에 기록된 ‘又 一 法師 梵唄 唱 引弥’는 755년에 이미 불교 의식에서
범패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범패 전래나 범패 문화
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기록이다(정재영 2000: 205). 造成記의 이 기록
과 함께 小林芳規(2003)에서 元曉의 『判比量論』(大谷大 소장)에 角筆로 梵唄와
관련된 부호가 기입되어 있음이 확인되면서 신라시대 梵唄의 실체를 엿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다만 『判比量論』은 본문의 대부분이 결여되어 있어⁸⁾ 그 양이 절대
적으로 빈약하고 그나마 국내 학계에서 자료 전체를 직접 조사한 바는 없기 때문
에 그 실체를 전면적으로 면밀히 살피기는 어려웠다.



<사진 22> 小林芳規(2008)



<사진 23> 여러 행에 걸치는 梵唄符 (284~290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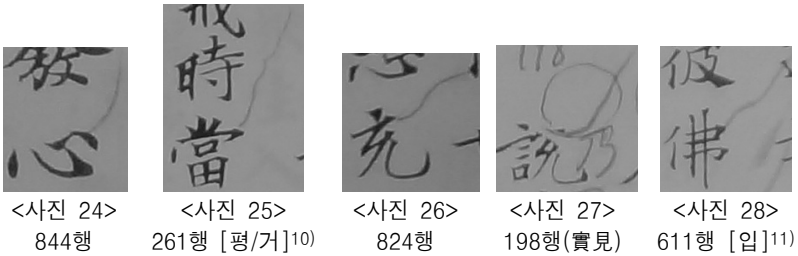
그런데 『判比量論』에서 확인되었던 梵唄符가 동대사 소장의 『大方廣佛花嚴經』
권제12~20에도 角筆로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小林芳規(2008)을 통해 소개되었

7)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권제10의 조성기는 26행, 권제50의 조성기는 14행의 이두문으로
되어 있다(남풍현, “新羅 華嚴經 寫經 造成記의 解讀,” 『古文書研究』 (1992),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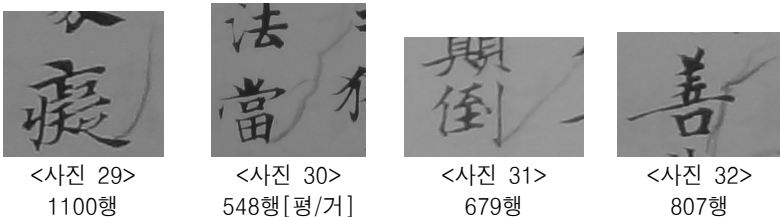
8) 본문 105행, 권말의 廻向揭 2행 및 識語 3행만이 존재한다(小林芳規 2003).

다(<사진 22> 참조). 필자도 2013년 8월 조사에서 ‘說’에 기입된 梵唄符를 확인한 바 있는데, 10차례의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梵唄符는 모두 223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16개가 여러 행에 걸치는 波線이다⁹⁾(<사진 23> 참조). 여러 행에 걸치는 波線의 범패부는 일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小林芳規 2003, 2008). 이와 같이 新羅 寫經인 『大方廣佛花嚴經』 권제12~20에서 범패부가 확인됨으로써 신라 시대 범패부의 기입 양상 뿐 아니라 당시 실현되었던 범패의 실체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小林芳規 先生の 조사본에 근거하여 이 자료에 각필로 기입된 梵唄符의 유형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9) 시작점이 右上인 경우 (* []은 성조)



(10) 시작점이 右下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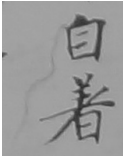


9) 小林芳規, 『角筆による新羅語加点の花嚴經』, 『南道佛教』 第91號, 南都佛教研究會(東大寺) [김정민 번역, 角筆에 의한 新羅語 加点의 花嚴經] (2008)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경 본문의 몇 개인가의 행에 걸쳐 오른쪽 방향으로 橫長의 波線을 角筆로 나타낸 梵唄譜”라고 하였다.

10) 권인환(2014).

11) 권인환(2014).

(11) 시작점이 左上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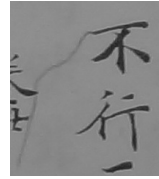
<사진 33>
1064행



<사진 34>
734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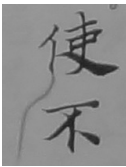


<사진 35>
926행



<사진 36>
1102행

(12) 시작점이 左下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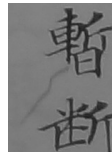
<사진 37>
874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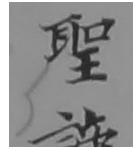
<사진 38>
115행



<사진 39>
904행



<사진 40>
843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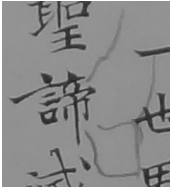
<사진 41>
58행 [거]¹²⁾

시작점이 오른쪽에 있는 범패부, 즉 (9)의 右上과 (10)의 右下에서 시작하는 범패부는 대부분 선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것들이다. 또 시작점이 왼쪽에 있는 범패부, (11)의 左上과 (12)의 左下에서 시작하는 범패부는 대부분 선의 방향이 왼쪽으로 하향하는 것들이다. 旋律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는 선의 모양도 호선, 물결선, 꺾은 선, 직선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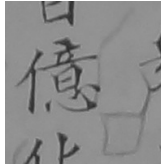
이미 기입한 梵唄符와 달리 別誦으로 읽을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한자 옆에 사각형을, 그리고 거기에 다시 범패부를 기입하기도 하였다(小林莠規 2008). (13가)는 梵唄符의 시작점은 동일하나 旋律이 달라짐을 나타내고 (13나)~(13마)는 旋律뿐 아니라 시작점의 위치도 모두 달리 기입되었다.

12) 권인한(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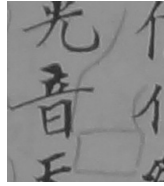
(13) 梵唄符를 다시 기입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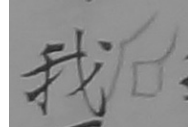
<사진 42>
66행



<사진 43>
75행



<사진 44>
76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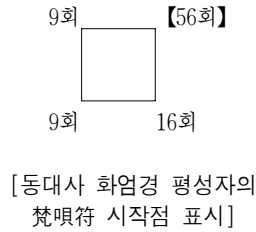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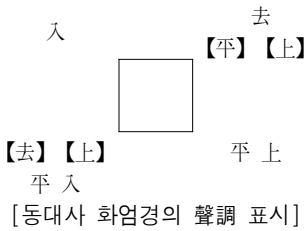


<사진 45>
111행

그러나 우리는 아직 梵唄符가 시작점의 위치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梵唄符의 시작점과 聲調와의 관련성은 기존 논의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小林夢規(2008)에서도 『判比量論』에 각필로 기입된 梵唄符의 시작점과 聲點의 위치가 관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¹³⁾

梵唄符의 시작점과 聲調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동대사 화엄경에 기입된 聲調 표시법을 알아야 한다. 권인한(2014)의 논의를 통해 이 자료에 각필로 기입된 聲點이 중층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성조별로 분류해 보면, 평성자는 위에서 보듯이 대다수가(5/8) 右上에 圈點이 기입되는데 右下에 기입되거나(1/8) 左下에 기입되는 경우(2/8)도 있었다. 또 상성자는 대다수가(2/3) 左上에 圈點이 기입되었고, 거성자도 대다수가(5/7) 左下에 圈點이 기입되었지만 右上에 기입되기도(2/7) 하였다. 입성자도 대다수가(4/5) 左上에 圈點이 기입되었다. 이와 같은 권인한(2014)의 논의를 바탕으로 聲點의 위치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13) 『判比量論』에 기입된 梵唄符의 시작점이 좌상인 것은 입성, 우상인 것은 평성, 좌하인 것은 거성 혹은 상성자이며 상성자와 거성자의 梵唄符의 시작점이 같은 위치인 것은 조선 한자음에서는 상성자가 거성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성점부의 권점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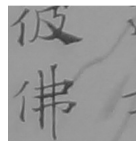
* 【 】 은 일반적인 경향을 제시한 것임.

권인한(2014)의 논의를 바탕으로 平聲字의 梵唄符 시작점의 위치와 聲點의 위치를 비교해 보았는데 일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즉 평성자 90개 중 시작점이 右上인 것이 56개로 62%의 비율을 차지했고 시작점이 右下인 것이 16개, 左下가 11개로 나타나 平聲이 右上, 右下, 左下에 표시되었던 것이나 대다수가 右上에 표시되었던 것과 경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평성자 ‘心’에 梵唄符가 기입된 것은 3회 나타나는데 시작점이 모두 右上이다. 이러한 경향만 본다면, 梵唄符와 聲調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동대사 화엄경에서 平聲이 左上에 표시된 예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는데 梵唄符에서는 平聲字인 734행 ‘羅’가 左上에서 시작된 예가 있다.¹⁴⁾



<사진 46> 66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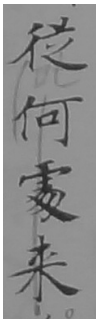
<사진 47> 75행

14) 위의 聲點 표시에서는 右上에 상성이나 입성이 표시된 예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9)에 제시한 611행의 ‘佛’은 입성인데도 梵唄符의 시작점이 右上이어서 聲點 표시와 梵唄符 시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佛’은 중세국어에 거성으로 남아 있고 中古音 성조에서의 입성도 音質의 문제이지 音高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이돈주 1995) 지적을 상기한다면 ‘佛’에 기입된 梵唄符 시작점의 위치가 右上인 것은 설명될 수도 있을 듯하다. ‘佛’의 예를 참조할 때 聲調와 梵唄符의 관련성은 聲調로 표시되는 音高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한자의 네 모서리 중 左上은 聲點 중에서는 유일하게 入聲이 표시되었던 자리이고 平聲이 표시된 예는 없다. 그런데 평성자인 羅에 표시된 梵唄符는 左上에서 시작한 것이다. 또 <사진 4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佛’에 기입된 梵唄符는 左上에서 시작하지만, 左上에 기입된 聲點은 평성과 거성뿐이고, ‘佛’은 入聲字이다. 즉 聲點 위치와 梵唄符의 시작점 위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聲調와 梵唄符의 관련성을 보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연구를 기다려야 할 듯하다.

4. 미해독의 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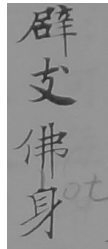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대사 화엄경에 기입된 각 필 부호는 위치나 모양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 기입 위치나 부호의 모양과 그 부호가 표시하는 기능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호의 기능을 모두 해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문맥에 의존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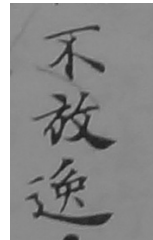
<사진 48> 742행



<사진 49> 555행



<사진 50> 484행



<사진 51> 897행

742행 ‘從[叱]何處來’에는 ‘何處來’에 중앙을 관통하는 수직선이 기입되어 있는데 이를 小林莠規(2008, 2012)에서는 合符의 예로 제시하였다.¹⁵⁾ ‘從[叱]何處

來'는 '何處-從[叱]-來'의 순서로 해석되므로 '何處來'가 合符로 표시되었다는 것도 의아스럽지만, 그보다 '從'의 왼쪽에서 '何'로 기입된 곡선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梵唄符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 확인된 범패 부 중에는 이와 같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에서 해석 순서를 언급하였는데 혹시 逆讀線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하다.

<사진 49>에 제시한 555행의 '云何不於一念中 普知一切衆生心'에도 742행과 유사한 선들이 기입되어 있다. '何' 좌하에 기입된 곡선과 '不於一念'에 기입된 직선도 그 기능을 짐작하기 어렵다. <사진 50>에 제시한 484행의 '辟支佛[叱]身'에서는 '佛'과 '身' 사이 오른쪽 바깥에 각필자 [叱]이 기입되어 있고 그 자간에는 짧은 수직선이 기입되어 있다. 小林莠規(2003)에 의하면 일본 자료에 墨書나 朱書로 기입한 合符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 484행의 짧은 수직선을 일본 자료에 나타난 合符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명확히 말할 수 없다. <사진 51>에 제시한 897행의 '是名菩薩住不放逸十種清淨'에서는 '不' 아래 좌측에서 내려가는 역사선이 기입되어 있다. '放逸 - 不'의 순서로 해석되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사진 48>의 '從'에 기입된 곡선처럼 逆讀線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5. 결 론

본고는 8세기 중반에 書寫된 東大寺圖書館 소장 『大方廣佛花嚴經』 卷第12~20에 角筆로 기입된 符號를 정리하여 그 전체 모습을 학계에 보고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8세기 중반에는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讀誦하는 데에 어떤 부호가 사용되었는지, 그 부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 단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였다.

우선 동대사 화엄경에 각필로 기입된 부호는 텍스트와 관련된 부호와 讀誦과

15) 小林莠規(2008, 2012)에서는 '何處來'에 縱長線의 合符가 각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관련된 부호로 나눌 수 있었다. 텍스트와 관련된 부호로는 合符, 訓讀符, 省略符, 削除符 등이 있으며, 讀誦과 관련된 부호로는 聲點과 梵唄符가 기입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존의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梵唄符의 시작점과 聲點의 관계를 점검해 본 결과 평성자의 경우는 그 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각 부호를 살펴본 결과 동대사 화엄경에 기입된 부호는 기입 위치 및 부호의 모양과 그 부호가 표시하는 기능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으며 아직 정확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부호의 기능을 모두 밝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은 逆讀線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해 보았다. 앞으로 조사가 더 진행되고 그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대사 화엄경에 기입된 부호에 대해서도 새로운 면모가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인한. 『개정판 중세한국한자음훈집성』. 제이앤씨, 2005/2009.
- 권인한. “東大寺圖書館藏 華嚴經의 角筆로 본 新羅漢字音.” 『口訣研究』 33집 (2014). 133-160.
- 金永旭. “韓日間の 文字交流에 대하여 - 佛敎 文化의 흐름 속에서 古代 韓日關係를 照明함 -.” 『인문언어』 8(2006). 199-221.
- 金星周. “동대사 『화엄경』 권제12-20의 節略 樣相.” 『서지학보』 39(2012). 105-130.
- 김성주. “신라 점토석독구결 시탐(試探).” 『배달말』 53(2013). 23-54.
- 金永旭. “判比量論의 國語學的 研究.” 『口訣研究』 제12집(2004). 81-97.
- 金永旭. “古代國語의 處所格 ‘-良’에 對한 研究.” 『口訣研究』 28(2012). 33-50.
- 金完鎭. 『향가해독법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김응기. “범패 전승에 사용된 각필악보 연구: 성암고서박물관소장 『묘법연화경』 권8을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12(2005). 69-88.
- 南豊鉉. “新羅 華嚴經 寫經 造成記의 解讀.” 『古文書研究』 제2권 1호(1992).

東大寺圖書館 소장 『大方廣佛花嚴經』 卷第12~20에 角筆로 기입된 諸符號

1-13.

南豊鉉. “古代韓國語의 謙讓法 助動詞 ‘白/畚’과 ‘內/아’의 發達.” 『口訣研究』 제26집(2011). 131-166.

南豊鉉. “韓國의 借字表記法の 發達と 日本의 訓点の 起源について [韓國의 借字表記法の 發達과 日本 訓点의 起源에 대하여].” 『日・韓訓讀シンポジウム 발표자료집』(2012).

南豊鉉. “東大寺 所藏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釋讀口訣에 대하여.” 『口訣研究』 30(2013). 53-79.

박부자. “동대사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권제12~20에 기입된 각필자 [白]에 대한 연구.” 『口訣研究』 30(2013). 81-106.

박부자. “東大寺圖書館 소장 『大方廣佛花嚴經』 권제12~20의 角筆을 통해 본 신라어 문법형태소.” 『口訣研究』 33집(2014). 161-196.

박용식. “佐藤本 『華嚴文義要訣問答』의 符號口訣과 8세기 新羅의 文法 形態.” 『口訣研究』 24(2010). 37-60.

박지선. “고대 사경지 제작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56(2013). 499-520.

小林芳規. “新羅經典에 기입된 角筆文字와 符號: 京都・大谷大學藏 『判比量論』에서의 發見.” 『口訣研究』 제10집(2003). 5-30.

小林芳規. “角筆による新羅語加點の花嚴經.” 『南道佛教』 第91號(2008). 一一一-一八. [김정빈 번역. 『角筆에 의한 新羅語 加點의 花嚴經』].

小林芳規. “日本經典訓讀의 一源流: 助詞 이를 근거로.” 『口訣研究』 23(2009). 241-261.

小林芳規. “日本 所在 8・9世紀 花嚴經 및 그 注釋書의 加點.” 『書誌學報』 39(2012). 25-44.

신라사경 프로젝트팀. 『결과물(1) 東大寺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권제12~20 교감 연구』. 한국연구재단 결과보고서, 2014.

이지선. “한국불교음악의 기보에 관한 고찰: 『지장경(地藏經)』에 나타난 각필부호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3(2003). 211-245.

- 이지선. “17세기 각필문헌 연구:동국대학교소장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41(2007). 263-288.
- 장경준.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서 ‘故’자에 현토된 구결점의 해석.” 『태릉어문연구』 14(2006). 1-23.
- 장경준. “高麗初期 點吐口訣의 諸符號.” 『한국어학』 통권 제40호(2008). 307-339.
- 장경준. “釋讀口訣과 訓点 資料에 使用된 符號의 比較研究 試論.” 『구결학회 발표논문집(2012)』. 121-143.
- 정재영.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연구.” 『문헌과 해석』 통권12호(2000). 196-214.
- 정재영. “新羅 寫經에 대한 研究.” 『口訣研究』 33집(2014). 97-131.
- 車炯錫. “角筆樂譜 研究: 誠庵古書博物館所藏『妙法蓮華經』卷 8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05.